

책읽기를 주제로 한 세 권의 책에서는 서로 다른 음향이 흘러나온다. 《책 읽는 소리》에는 문자와 정신의 세계에 운명을 걸었던 옛 선비들의 책 읽는 소리가 낭자하다. 《흙혈귀의 비상》에는 새 생명을 잉태하기 위해 익명의 독자에게 날아가는 새떼들의 날갯짓 소리가 요란하고, 《어느 책 읽는 사람의 이력서》에는 사유의 육중한 울림이 들린다. 이 글들은 책읽기가 또 다른 창조의 한 실마리라는 사실을 환기시킨다.

책갈피산책 |

## 《책 읽는 소리》 외

우리는 우리가 읽은 것으로 만들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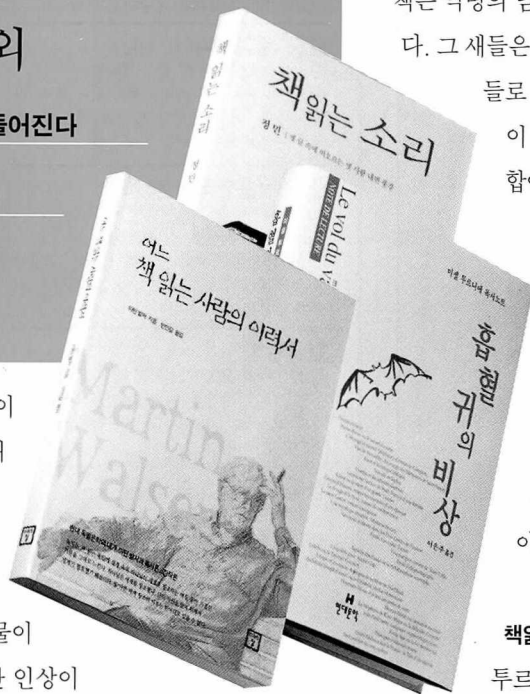
정민 지음  
마음산책/A5변형/256면/9000원

우리는 무엇인가를 읽어도 자신이 읽은 것에 대해 대개 침묵한다. 대니얼 패낙의 말을 빌리면 책은 다 읽었지만 우리는 아직도 책 속에 있기 때문인지 모른다. 그것을 말하거나 글로 쓰는 순간 내용물이 빠져나간 부대처럼 우리가 구축한 인상이나 기억이 금세 허물어져버릴까 두려워 서인지도 모른다.

그래서 그런지 다른 사람의 독서체험을 읽는 것은 낯설다. 책읽기를 업으로 삼은 작가와 지식인들이 쓴 독서일기나 독서론은 그만의 진실을 담고 있을 뿐, 나의 진실은 아니기 때문일 게다. 더욱이 다른 사람의 독서체험을 또 다른 글로 풀어내는 일은 더 낯설다. 저자와 독자가 공모한 놀이에 제3자로 개입해야 할 운명인니까. 하지만 앞의 독자에게 허용된 창조적 오독이 우리에게만 예외일 수는 없는 법이다.

### 독자를 습격하는 종으로 만든 새떼들

정민의 《책 읽는 소리》(마음산책)에는 제목처럼 옛 선비들의 책 읽는 소리가 낭자하다. 그 소리는 때로는 절절한 사모곡에 가까운가 하면, 때로는 궁핍한 선비의 신음소리이기도 하다. '독서백편의자현'을 몸소 실천한 선비의 낭랑한 독서성(讀書聲)에 반한 처녀가 담을 넘은 희대의 단막극이 나오고, 오랜 굶주림을 견딜 길 없어 집안의 유일한 재산인 《맹자》를 팔아 밥을 지어 배불리 먹은 서생의 슬픈 운명이 있다.



《어느 책 읽는 사람의 이력서》  
마틴 발저 지음 | 안인길 옮김  
미래의창/A5신/208면/9000원  
《흙혈귀의 비상》  
미셸 투르니에 지음 | 이은주 옮김  
현대문학/A5신/428면/15,000원

지은이에게 옛 선비들의 책 읽는 소리는 경탄을 자아내기도 하지만 한탄을 일으키기도 한다. 경탄은 글을 읽던 선비들의 박람강기와 경륜에 탄복한 자의 것이고, 한탄은 도구적 지식만이 판치는 사회에 분노한 자의 것이다. 문명의 속도가 인간의 호흡을 초월해버린 시대에 귀양지에서 기쁨이 없어 여명의 빛을 받아 14년 간 책을 읽어서 있던 바닥의 돌 위에 뒤꿈치 자국을 남겼다는 이는 어떻게 비칠까.

미셸 투르니에의 《흙혈귀의 비상》(이은주, 현대문학)에는 피에 굶주린 새떼들의 날갯짓 소리가 요란하다. 투르니에에게 세상에 부화된 책은 익명의 남녀 무리 속으로 종이로 만들어진 새떼를 풀어놓는 것이다. 그 새들은 닥치는 대로 독자를 찾아 흩어지고 독자들의 체온과 꿈들로 부풀어오른다. 그것은 활짝 피어나고 마침내 자기 자신이 된다. 투르니에 자신이 습격한 무수한 문학작품과의 교합에서 수태한 생명들이 바로 이 책이다.

이 책의 미덕은 다성성이다. 투르니에는 텅빈 공명관 같다. 그의 공명관에 빨려든 문학작품, 예컨대, 괴테의 《친화력》, 스탕달의 《적과 흑》, 헤세의 《유리알 유희》 등이 서로 어울려 독특한 음색을 낸다. 지은이가 문학작품에 침투해 올려내는 다채로운 화음은 독자를 달뜨게 하고 작가가 숨겨 놓은 의미를 캐내 제목소리를 되찾아준다. 투르니에는 책을 읽어주는 것이 아니라 책에 참여하게 한다.

### 책읽기는 자신을 마주하는 일

투르니에의 책이 프랑스적인 기질, 다시 말해 라블레나 파스칼의 후예임을 숨길 수 없듯이, 마틴 발저의 《어느 책 읽는 사람의 이력서》(안인길, 미래의창)에는 어쩔 수 없이 칸트나 헤겔의 둔중한 울림이 흘러나온다. 투르니에의 글이 펜싱경기 같은 경쾌한 찌르기와 날렵한 방어가 주무기라면, 발저의 글은 한수 한수에 장고를 거듭하는 바둑경기를 관전하는 느낌을 준다.

발저에게 책읽기는 자기 자신을 마주하는 일이다. “책을 읽는 사람은 언제나 책을 통해 책을 아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이해하는 것이다”는 경구가 이를 잘 보여준다. 발저에게 독자는 의미를 스스로 만들어가는 주체의 위치로 격상된다. 그가 카프카, 토마스 만, 괴테 등의 작품을 되풀이해 읽으면서 자신을 형성해가는 과정을 보여주는 것도 이 때문이다.

책읽기에 관한 책을 읽는다는 것은 허망한 일인지도 모른다. 경구수집가가 자신의 지혜를 경구로 만들지 못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의 독서체험으로 자신의 독서체험을 대체하려는 욕망은 헛되다. 하지만 그것이 무용하지는 않다. 책읽기가 독자를 잠재적인 창작자로 변신시키는 과정이라면, 책읽기에 관한 책읽기는 그 창조의 공정에 참여한다는 은밀한 즐거움을 안겨주기 때문이다. —박천홍기자